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김 석 운
건축사사무소 김건축
1945년 1월 제주 생
홍익대학교 건축과 졸업(1967년)

선친과 삼종숙부인 김한섭선생의 권유로 건축 전공하다
금성건축을 창립하신 고 김한섭 선생이 저에게 삼종 숙부 되십니다. 육촌동생이 건축하는 것을 보신 부친이 순수미술은 힘들지만 건축하면 먹고는 살겠더라고 제게 건축과 가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선친께서도 일찍이 그림 공부를 하셨는데, 말년에는 서예에 몰두 하셨습니다. 그림 공부하는 분위기가 집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김한섭 선생 뒤따라 홍익대로 편입하다
전남대 건축과에 입학했더니 김한섭 선생이 홍익대로 가셨습니다. 저도 뒤따라 다음 학기에 홍익대로 편입(1964년)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전공 외길이 힘든 것은 맞지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숙부가 계시니까 가르침도 받고 뒷바라지도 해주시고 해서 즐겁게 다녔습니다.

대학교 때 ROTC하고 군대에 바로 갔습니다.(1967년 입대~1969년 6월 제대)
복무한지 일년지나 121무장공비 침투가 있었지요. 이 때문에 3개월 연장 복무했습니다. 제대 후에 숙부 사무소(금성건축)에서 배웠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인턴실습으로 도제기간이 생략되다
다행인 것은 대학교 다니면서 사무소 경험을 남보다 앞서서 치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대학교 4년간 방학 때마다 실습에서 얻은 현장 실무경험으로 군 생활에 적응도 빨랐습니다.

군대생활=건축현장 소장의 역할
당시 군대에서는 철근 콘크리트조 이층막사가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는데 제가 맡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민간인 기능공들 2~3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일은 사병들 힘으로 다 해냈지요. 자재관리도 하고 공사계획도 짜고, 시공 감독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군제대후에 건축사사무소에서 한 일들 중 기억나는 프로젝트는 제주교육대학, 중앙직업훈련소(경기도 소사 소재), 한독직업훈련원(부산 소재) 등 입니다.

두 번째 직장은 제주에 있는 건설사에서
1972년, 제주도에 있는 세기건설이라는 건설회사로 가게 됩니다. 결혼하고 귀향한 셈입니다. 두 해 가까이 이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설계수업의 과정으로 시공 경험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수가 건축사사무소 보다 많아서 좋은 점도 있고요. 그러나 건설회사에 계

속 있을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건축설계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고, 신문에 칼럼을 쓰는 일을 꼭하고 싶었습니다. 칼럼리스트인 선배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제주 산업정보대와 제주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다
사무소를 시작하던 1974년 제주도에 전문대학 건축과정이 생겼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건축과 주임교수로 부임한 K선배에게 시간강사를 시켜달라고 해서 설계와 의장론을 가르쳤습니다. 1988년부터는 제주대학 산업디자인과로 옮겨서 실내설계를, 1994년에 건축과가 생기자 설계와 한국건축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35년에 책임지가 소득으로 남았습니다. 청하는 곳 여기저기에 글 한 줄 씩 쓰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이루어낸 셈이지요.

건설회사에서 한일
건설사에서 현장소장역할을 했는데, 헬리콥터 격납고 공사(현재 철거됨)와 그리고 학교공사 하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사실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이 힘들지요.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퇴근은 늦고, 인부관리하고, 공사 마무리 하고, 술자리하고... 군대생활하듯 지냈습니다.

1973년에 드디어 건축사사무소를 차리다
건설사 2년 정도 근무(1972~1974년)하고 1974년 3월에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무턱대고 사무실부터 차려놓고 보자고 한 거지요. 건축사면허는 2급 면허를 진작에 가지고 있었는데, 1급 건축사면허 취득하자마자 건설회사에 사표내고 나온 겁니다. 당시 나이 29살이었으니 일찍 차린 셈이지요. 대학 동기들 중에서 제일 빠릅니다.

대부분의 작업이 소형주택
사무소 개업 초기에는 주택 규모의 작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습니다. 1974년에 개업한지 현재 35년이 지났는데 거의 절반정도가 주택작업입니다. 조금 굵직한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드디어 규모가 있는 일들을 하게 되다
비교적 큰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처음 한 것이 5공시절 전국 각

건축은 땅위에 놓이는 것인데 결국 자연 즉, 풍토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순응하거나 전제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고들이 요즘은 점점 더 퇴색되어가는 흐름이 못마땅합니다. 특히나 설계경기를 통해서 선정하는 공공건축들의 감각적인 성향들, 투시도에 현혹되는 심사위원님들... 논리를 잃어버린 건축현상이 재미가 없어요.

도에 도지사 공관들을 대통령 숙소와 함께 짓는 일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것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부산공관은 김중업 선생, 광주 것은 박춘명 선생이 담당하셨으니 제게는 큰일이었던 셈이지요. 순수주거시설로 500여 평(1984년)이고 공사비도 여유가 있었고, 현재 대통령 관련 국가기록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규모 있는 작업으로는 탐라도서관(1987~198년, 5,000㎡, 91년, 가협회 아천상 수상), 제주도 제주도공무원교육원(1989년, 7,000㎡), 건축잡지에 발표했던 신제주 천주교회(1990년), 한국병원(8,000㎡), 1990년도에 와서 애월체육관, YWCA회관, 호텔도 몇 개 했고 한라도서관(2005년, 4,000㎡), 제주현대미술관(2006년, 1,700㎡, 건축가협회상), 제주도월컴센터(2007년, 7,000㎡) 등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택작업들이 제게는 건축수업이 된 셈이지요. 제주라는 지역성의 문제에 천착했던 계기도 되어 주었고...

지방에서 사무소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

사실 시골에서 건축사무소를 꾸려나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 만나기 힘들잖아요, 설계를 돈 주는 일로 생각안하고... 주택 설계는 일하는 재미로 하지요. 설계도면도 남보다 더 많이 그려주고 공사 잘 되도록 현장 돌봐주고...

소규모 주택설계를 열심히 해준 것 때문에 큰일을 하게 되다

그런데 작은 일들이 나중에 큰 프로젝트 하는데 도움이된 겁니다.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공공건축 설계 기회도 결국 그 덕을 본 셈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한두개 정도 하고 골프클럽하우스, 병원 등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선교회관과 제주컨트리클럽하우스(2003년 발표)는 사장 집을 설계하면서 쌓인 신뢰로 수입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에서 사무소 차릴 자신이 없었다

저는 대학졸업하고 서울에서 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면서도 서울출신 친구들과하고 겨울 만큼 실력도 안 되고 연이 있어 도와 줄 사람도 없었고요.

고향에 돌아와서 건축사자격을 땀으니 이제는 사무소 차려도 된다는 자신을 얻어 개업한 것입니다. 이때 지방에 만연해 있던 '건축사사무소=건축허기방'이라는 인식에 저항하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으로 건축가협회상을 받게 되다

서울 계신 분들이 상을 주시고 그런 것이 어쩌면 시골에서 어렵게 일 한다는 것을 착하게 보고 그러지 않았나, 솜씨가 뛰어났다 기보다 지역 가점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은 제주현대미술관은 설계경기 당선작으로 2009년 건축잡지 와이드 7월호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는데, 거기서도 말했지만 제주의 지역성 문제를 핵심 주제로 한 작업이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 본토의 문화와는 색깔이 다릅니다. 풍토가 다르지요. 땅도 사람들 생각도 달라요. 건축은 땅과 관련된 작업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주현대미술관 계획의 주제였지요. 요즘의 우리 건축의 시류로는 고루한 사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특별한 지역성에 천착하다

저의 이런 생각은 라이트나 알토의 지역주의적인 성격과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땅위에 놓이는 것인데 결국 자연 즉, 풍토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순응하거나 전제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고들이 요즘은 점점 더 퇴색되어가는 흐름이 못마땅합니다.

특히나 설계경기를 통해서 선정하는 공공건축들의 감각적인 성향들, 투시도에 현혹되는 심사위원님들... 논리를 잃어버린 건축현상이 재미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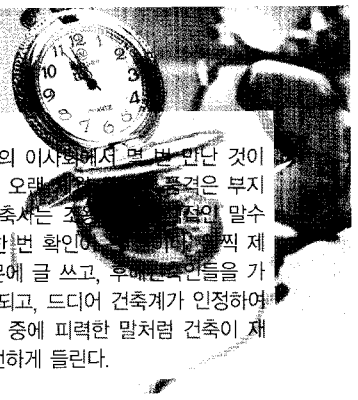
저야 제주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제주의 국지기후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지요. 비바람이 센 지역은 틀림없지만 바람만 가려주면 그렇게 환경이 좋을 수 없습니다. 겨울에도 기온이 9~10도이고 바람만 없으면 봄날입니다. 저는 지금도 알토의 건축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좋아합니다.

저희 사무소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전에는 열 명 정도인 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5명입니다. 전원이 제주대학 출신들인데 제가 가르치고 데려다가 일시키는 셈이지요. 초기에 있던 직원들이 나가고 현재는 3년 된 직원이 제일 오래된 직원이라 한번 물갈이 된 셈입니다.

사무소에서의 제일 힘든 점은 늘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것입니다.

사무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시공이나 인테리어를 할 생각은 없었다

건축사무소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 건축시공하고 인테리어공



-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 대학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찬위원회 위원장



내가 만난 김석윤 건축사...

제주에서 살고 있는 건축사 김석윤을 만날 기회는 건축단체의 이사회에서 몇 번 만난 것이 거의 전부였다. 잠시의 스킨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 오랜 기간을 보며 성격은 부지불식간에 드러나게 되는 법이어서 내가 짐작하는 김석윤 건축사는 조금씩 조금씩 말수가 적은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만남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딱 제주에 가서 사무실을 차리고 싶은 그의 바람대로 되었고, 신문에 글 쓰고, 후배건축사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들어오는 일들에 성실하다보니 큰일도 하게 되고, 드디어 건축계가 인정하여 건축상도 타게 되었다. 그 정도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글 중에 피력한 말처럼 건축이 재미있고 보람 있는데 돈까지 벌려고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신선하게 들린다.

사를 같이 하면 어쩌나고 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을 따면 설계가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여럿이 인테리어 분야에 큰 활동을 했었지요. 제주에도 1980년대에 90년대 초에 걸쳐서 관광시설 관련 인테리어 일이 많았습니다. 장사 수완을 타고나지 못해서 그런지 그쪽 일이 당기지가 않더군요.

화려하지 않고 작더라도 설계에만 매진하려는 그런 태도는 숙부님께 훈련받으면서 얻어진 듯 합니다. 숙부도 건축사사무소 운영은 잘 못하신 편인데, 저도 뒤를 따르는 셈이 되었습니다.

사무소는 그냥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무소를 넘겨주는 문제는... 남길 것 없어요. 법인사업체도 아니고 개인사무소 체제인데 그냥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들에게 건축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기를 쓰고 합니다. U-Pen에서 MA마치고 현재 뉴욕에서 건축사사무소 3년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품위주의 사무소는 아니고 관공서 일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건축설계는 재미있고 보람이 있는데 돈까지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건축이 좋아서 건축을 하노라 하잖아요? 건축 전공하는 학생 중에는 무언지 모르고 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지만 실상 건축은 재미있고 보람이 남는 직업이지요. 그러나 돈 되는 직업은 아니지요.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니깐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공평하니까.

한때 재미보고 돈도 벌던 때도 있었지요. 잠시 우리세대는 그것을 누린 셈이지요. 그것도 영타리 실력으로... 이제 끝난 일이고 지금이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선대의 가르침을 따라서 담담하게 살아가고 있다

선친께서 건축하면 먹고는 살겠다고 제게 추천해주신 것인데 건축전공해서 배불리 먹고살만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은 일찍 터득했습니다.

저는 제주 섬 안에서는 비교적 잘사는 집 자식인데도 서울에 와서 대학 다닐 때까지 보리밥 먹고 자라났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잘살아도, 못사는 이도 보리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가난에 익숙합니다. 수분(守分), 너 본분을 지키라는 선대의 가르침을 따라 거친 밥 먹고 욕심 줄이고 삽니다.

좋은 직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계속 글도 쓰고...

제주대학 박물관 당선

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작은 작업들입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해마다 지역에서 설계경기가 열 개 정도 나오는데 지난해에는 제주대학교 박물관(4,800㎡)에 당선되어 얼마 전에 마무리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건축계가 아주 재미없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소형사무소는 점점 힘이 듭니다. 일이 줄어가는 상황이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날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틀리에 사무소들은 작은 일들 설계해서 연명하다가 가끔 설계 경기해서 천우신조로 기회 잡으면 잠시 여유부리고 하는 거지요.

건축 쟁의 의식이 소멸되어가는 현재의 흐름

점점 쟁의 의식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가의식, 쟁의 의식이 없어져가는 현재의 건축계의 그 흐름이 걱정이지요.

오늘날의 건축계의 현상은 건축단체 임원과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이 책임져야 된다

건축계의 권력자인 협회 임원과 축근들, 그리고 큰 자본을 가진 대형사무소의 입주들이 최근의 건축계의 현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매머드사무소들이 오늘 날의 이와 같은 현상에 책임지지 않으면 한국건축계는 절망이라 봅니다.

제주에도 육지의 나쁜 영향이 오다

제주도에서도 육지의 건축계의 현상들 즉 일을 따기 위해 수단방법으로 가리지 않는 나쁜 경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주에서 누렸던 행복이 이제 위기입니다. 이전에 그런 현상이 제주도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젊을 때 저를 보고 뒷돈 줄 줄 모르는 놈, 술 안 사는 놈, 오만한 놈으로 불렸지만 오히려 저는 그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태평시절이었지요.

앞으로는 맑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듯해요.

건축계에 희망을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건축계가 희망이 살아나는 동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들 걱정하는데 후배건축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축계가 되고 건축단체통합 등등 포함해서 희망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